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3. 12. 27. (수)

유럽연합(EU) 27개국에 삼계탕, 만두 등 열처리가금육제품 수출길 열렸다!

- 삼계탕, 냉동치킨, 만두 등 열처리가금육 제품 유럽연합(EU)의 검역위생 기준 충족
- 정부·지자체·업계가 손잡고 노력한 성과, 연간 2천만달러 이상 수출 기대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, 이하 식약처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**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***에 대한 **유럽연합(EU)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12월 27일 마무리**됨에 따라 **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해당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렸다**고 밝혔다.

* 냉동치킨, 만두, 볶음밥, 닭가슴살 소시지, 소스류 등

2022년 기준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,037만 달러 규모로 미국, 일본 등 2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향후, **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점진적으로 연간 약 2,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**된다.

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**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**하였으나, 당시는 식품업계에 **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**이었으며, 국내 **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가 빈번하게 발생**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**1998년 절차가 중단**된 바 있다.

*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는 식품 등에 '95.12월 도입, '96.12월 시행 / 축산물에 '97.12월 도입, '98.7월 시행

이후 **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 운영**되고 고병원성 **조류인플루엔자 예찰·방역 체계가 개선**되는 등 식품위생과 가축방역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됨에 따라,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**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**하였고 이후 관련 부처와 여러 지자체, 업계와 함께 **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**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**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*를 완료**했다.

*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인정, 현지실사 수검,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운영, 수출작업장 등록 등

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포함하여 **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케이(K)-푸드 수출이 확대**될 수 있도록 **지원**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, **더욱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**될 수 있도록 **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**이다.

식약처	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송성옥 (043-719-2170)
		담당자	사무관	강성필 (043-719-2167)
	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	책임자	과 장	오영진 (043-719-1351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진 (043-719-1354)
	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	책임자	과 장	오재준 (043-719-6201)
		담당자	사무관	정진목 (043-719-6202)
농식품부	국제협력관실 검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경희 (044-201-2071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형 (044-201-2072)
	식품산업정책관실 농식품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이용직 (044-201-2171)
		담당자	사무관	여종수 (044-201-2172)
	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	책임자	과 장	이연섭 (044-201-2331)
		담당자	사무관	민동명 (044-201-2338)
	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	책임자	과 장	백 현 (054-912-0416)
		담당자	사무관	안호진 (054-912-0420)

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
10년 지켜온 국민안심, 100년 뒤에도 안심기준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